

#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용 차이 분석

최지은 · 한재연

##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연구의 배경	1. 공간의 의미
2. 연구의 목적	2. 각 성별의 공간이용 패턴
3. 연구의 방법	3. 이성의 공간에 대한 인식
	4. 차이에 대한 원인
	III. 결론

## 초록

공간은 개인이 자신의 성질을 투영하여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다. 남성과 여성은 자신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 공간을 선택하고 점유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공간상에 드러나는지 분석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성향과 인식을 근거로 조사하고자 함에 있다. 성향의 차이에 따라 여성은 정적이고 안정된 공간과 소비하는 공간을 선호하며, 남성은 신체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동적이고 경쟁적인 공간을 선호한다. 인식 차이에 의해서 여성은 온화하고 대화가 많은 곳이나 부드러운 분위기의 공간을 이용하고, 남성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거칠고 활동적인 공간을 이용한다. 이와 같이 성(性)에 의해서 공간 또한 구분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주제어 : 공간, 장소, 젠더, 여성성, 남성성, 신체, 인식, 고정관념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공간 이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또한 자신만의 공간이용 패턴을 구조화 시키며, 스스로 특정 장소에 특정 의미를 부여한다. 공간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공간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여성과 남성이 각각 특징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 공간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부여되기도 하며, 고정관념이 특정 공간을 지배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공간 이용 패턴과 그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의문을 갖고 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젠더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공간적 특성과 공간에 대한 인식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공간 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공간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과 공간이용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지, 그러한 특성이 공간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로 나타난 공간이용 패턴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성인 20대 여자 80명, 남자 70명 총 150명을 대상으로 주변의 장소의 이용과 인식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바탕으로 엑셀로 그래프화 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표의 내용은 장소 선정의 이유를 요인별로 묶어 분류하였다. 젠더와 성별 그리고 사회지리에 관련된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남성이 이용하는 공간'과 '여성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조사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들과 비교해본 후, 특정 장소에 여성성, 남성성이 부여되는 이유를 신체적 요인, 특징적 요인, 타인의 인식이라는 3가지 근거로 파악하여 볼 것이다.

# II. 본론

## 1. 공간의 의미

공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 어떤 활동의 특성을 규정하고 다시 그에 따라 성격이나 의미를 부여받는 관계성”(최병두, 2009, 26)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은 관계에 의해 성격을 갖게 되며, 그 공간에 담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표출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즉, 공간을 이용하는 누군가에 의해 공간의 특성이 결정된다. 결국 여성과 남성이 장소와 공간을 다르게 경험하는 정도를 탐구하는 것 또는 그 경험의 차이 자체가 장소의 사회적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맥도웰, 2010)

폴 녹스는 “도시에는 문화, 공간,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폴 녹스, 2012, 55)고 하였다. 공간은 정체성 형성, 고정관념화, 객체화, 이분법적 구성 등의 사회의 모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자면, 노동계급의 공간은 ‘더럽고’, ‘위험하다’와 같은 인식으로 도시에서 계급의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남성이 이용하는 공간, 여성이 이용하는 공간도 사람들에게 특정한 인식을 갖게 한다. 이는 사회가 성별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 분리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된 성적 경관은 공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들이 공간에 가지적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일관된 패턴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폴 녹스, 2012)

사회지리학에서는 남성의 공간은 공적 공간이며 여성의 공간은 사적 공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공간은 비가시화 되고 소극적인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성차별의 인식이 공간에 담겨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인 '성적 성향'이 '공간'이라는 가시적 대상에 투영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특성과 외부의 편견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의 이용 차이를 파악하였다.

## 2. 각 성별의 공간 이용 패턴

### 1) 이용하는 공간 현황

20대 남녀 총 1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업무 외의 시간에 집을 제외하고 동성의 지인들과 이용하는 공간을 설문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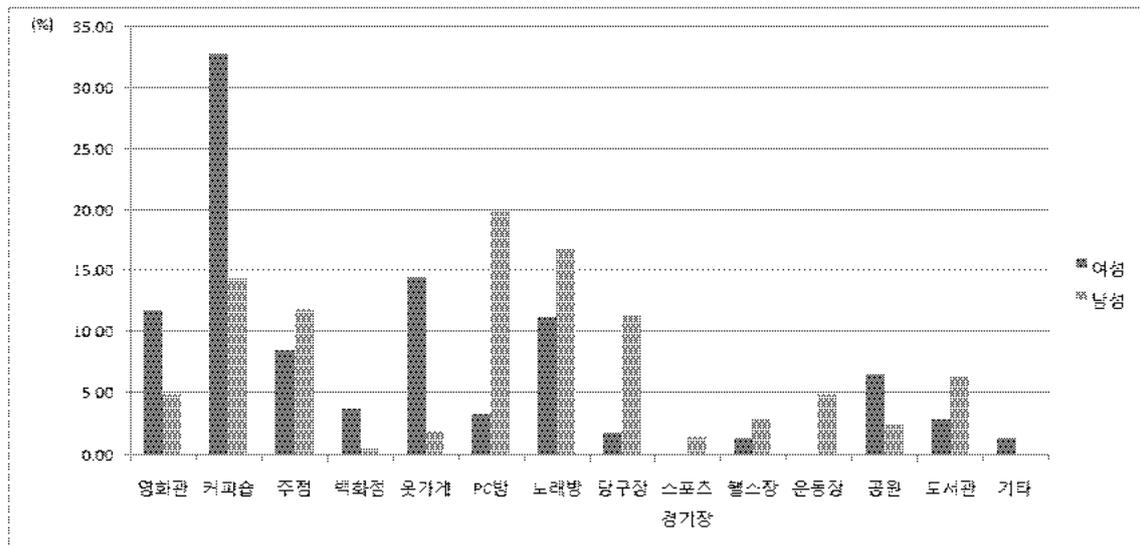


그림 1. 남성과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그림 1을 살펴보면,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PC방, 당구장, 운동장 등 대체로 활동적인 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커피숍이나 영화관, 옷가게, 백화점 등 비교적 정적으로 휴식을 즐기거나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와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서로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여러 장소 중에서도 남성은 pc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여성은 커피숍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옷가게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게임, 당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고, 여성은 대부분이 음료를 마시며 오래 휴식하거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 2) 머무르고 싶은 장소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원하는 공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의 응답에 이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설문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다음은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공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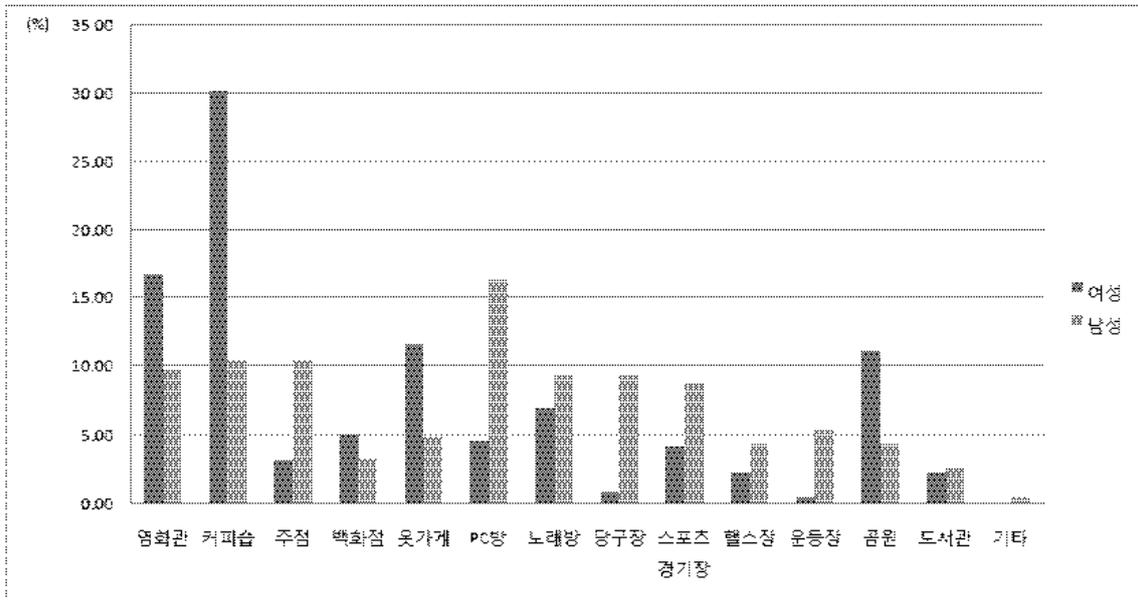


그림 2. 남성과 여성이 머무르고 싶은 장소

남성과 여성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장소에 대한 설문 결과는 그림 1의 실제 주로 이용하는 공간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우선 남녀의 대비가 뚜렷한 장소는 영화관, 커피숍, 주점, 옷가게, PC방, 당구장, 스포츠 경기장, 운동장, 공원이었다. 이 중 여성이 선택한 선호하는 장소는 영화관, 커피숍, 옷가게 등이었으며, 남성이 선택한 장소는 주점, PC방, 당구장, 스포츠 경기장, 운동장이었다.

각각의 성별이 선택한 장소를 살펴보면 서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영화관이나 커피숍 등 앉아서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지만, 남성은 게임이나 스포츠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혹은 볼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은 정적인 행위를 하는 공간이나 쇼핑을 위한 공간을 선호하는 반면, 이러한 공간에 대한 남성의 선호도는 비교적 낮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림2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공원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가벼운 산책이며, 싱그러운 분위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점에 대한 선호도도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주점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등의 응답을 통해, 남성은 주점이라는 공간을 ‘대화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이 심리적 안정과 대화를 위해 선호하는 공간이, 커피숍과 같이 깔끔하고 조용하며 밝은 장소였다는 것과는 대비되는 특징이다.

물론 남성과 여성이 선택한 커피숍과 영화관을 동성과의 대화를 위한 장소로 선호하고 있었다. 여성이 선호하는 몇몇 공간을 남성도 마찬가지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이 선호하지 않는 공간에서도 남성은 편안함과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다시 말해,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공간에 대한 남성의 선호도는 높았지만, 남성이 높은 선호도를 가지는 공간에서는 여성의 선호도가 낮았다. 이는 여성이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공간 모두에서 남성은 편안함과 흥미, 동성과의 유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들

은 몇몇의 공간만을 이용하려 한 것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나, 남성은 여러 공간에 대하여 큰 차  
이 없이 균등하게 이용하려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은 어떠한 특정 공간을 꺼려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공간을 거리낌 없이 이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성은 어떤 공간에서든지 구애받지 않  
으며 위축되지 않고 자신을 표출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1.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장소로 선택한 이유 비율 (단위 :%)

	심리적 안정	흥미	신체적 활동 선호	공감대 형성	기타	합계
여성	28.37	19.07	1.86	37.21	13.49	100
남성	12.64	19.23	22.53	30.77	14.84	100

표 1은 그림 2의 응답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분류한 것이다. 여성이 가장 머무르고 싶은 장  
소로 커피숍과 영화관을 고른 이유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 “친구들과 공감대 형  
성을 위해” 등과 같았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함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또는 편안함  
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선호하였다. 대체로 타인과 공감대를 공유 할 수 있다는  
것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대화를 통해 관심사나 경험, 체험 후기 등을 공  
유하고, 같은 취미와 취향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도 동일했다. 그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을 원했지만,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여  
성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남성들은 대체로 활동적인 것을 할 때 재미있다고 느꼈고, 이러한 특  
정 행위들을 함께 함으로써 친밀함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여겼다. 표 1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선  
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신체적 활동을 포함하여 게임과 내기 등을 통해서도 흥미를 느  
끼고 있었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각 성별이 특정 공간을 찾는 이유로 가장 대비되는 항목 두 가지가 ‘심  
리적 안정’과 ‘신체적 활동 선호’였다. 여성은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곳에 머무르길 원했으며 신  
체적 활동을 하는 공간에 대한 선호는 매우 적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은 활동  
적인 것을 선호하여 신체를 이용하는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찾았으며, 심리적으로 안정감, 평온  
함을 느끼기 위해 공간을 이용한 것은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 3) 남성과 여성이 기피하는 장소

그림 3의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가장 기피하는 공간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3에서는 PC방과 당구장이 여성과 남성 모두가 기피하는 장소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뒤를 이어 여성은 주점과 스포츠 경기장, 헬스장을, 남성은 도서관과 백화점을 피하고 싶은 장소  
로 꼽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기피하는 장소가 PC방이나 당구장, 헬스장이 높은 비율로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  
체로 게임을 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곳을 꺼려하고 있었다. 또한 주점의 비율  
도 높았는데, 그 이유로는 “술을 즐기지 않음” 뿐만 아니라 “시끄러워서(분위기 등이 싫어서)”라  
는 응답이 보였다. 다시 말해, 여성은 공간을 선택할 때 대상 공간의 기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분위기 등 환경적인 요인도 매우 크게 고려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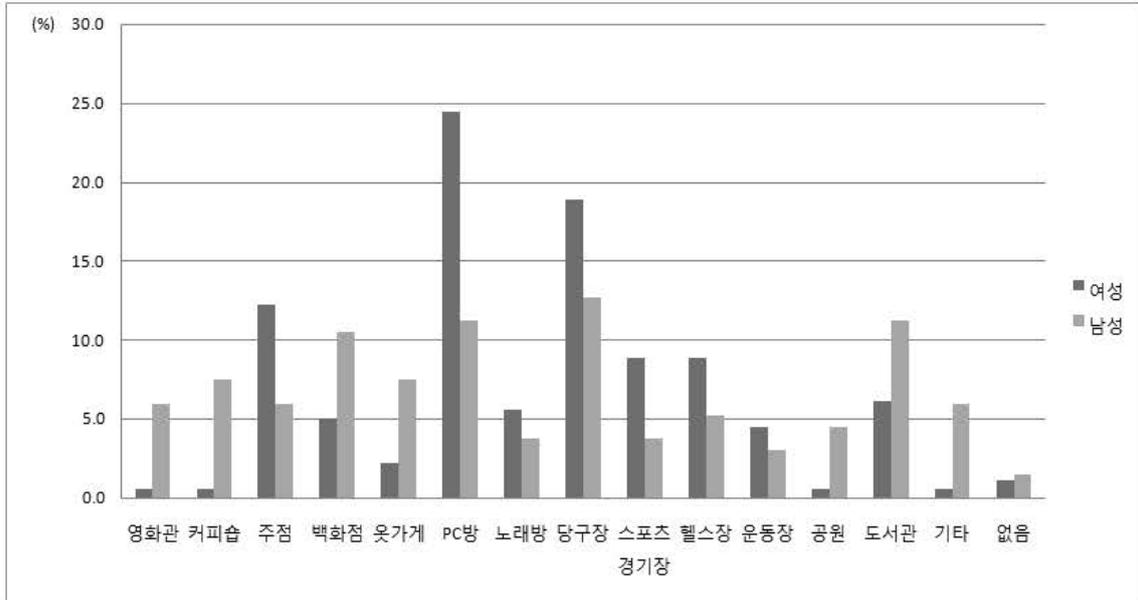


그림 3. 남성과 여성이 기피하는 장소

표 2. 남성과 여성이 기피하는 장소로 선택한 이유 비율(단위: %)

	성질차이	흥미가 없음	인식	환경적 요인	기타	합계
여성	28.09	33.71	2.81	31.46	3.93	100
남성	19.84	45.24	18.25	10.32	6.35	100

신기한 점은 여성이 특정 장소를 기피하려 하는 것은 단지 그곳이 남성만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성들의 장소라는 인식 보다는 개인의 흥미와 성향,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공간의 이용에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흥미가 없음' 항목에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여성들은 게임이나 신체 활동에 흥미를 갖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환경적 요인'에서 담배냄새가 많이 나고 시끄럽기 때문에 위의 장소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남성들이 기피하는 공간들은 여성들만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PC방과 당구장은 앞선 응답과 같이 선호하는 남성들도 많았으나 오히려 기피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과 마찬가지로 당구나 게임에 흥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성의 응답에서 백화점이나 옷가게와 같이 여성들이 비교적 선호한 장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남성들은 여성과 달리 쇼핑 하는 공간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백화점과 옷가게를 선택한 사람들은 "돌아다니기 힘들다", "불필요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것을 이유로 답했다.

그리고 남성의 기피하는 장소 중 도서관의 비율이 높은 것을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다. "갑갑하고 숨이 막힌다.", "가만히 있어야 하기에 답답하다"라는 남성들의 응답을 통해, 공간을 매개체로 하여 신체 능력을 과시하는 남성들이 조용하고 자신의 신체를 통제해야 하는 공간인 도서관

에 대해서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를 보아 남성은 공간을 이용할 때 여성에 비해 '사람들의 인식'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끼리 가면 이상하다", "눈치 보인다"와 같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렇게 느낀 장소는 여성과의 응답이 확연히 대비되는 영화관과 커피숍이었다.

### 3. 이성의 공간에 대한 인식

다음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이성(나와 다른 성(性)을 가진 사람)의 공간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장소를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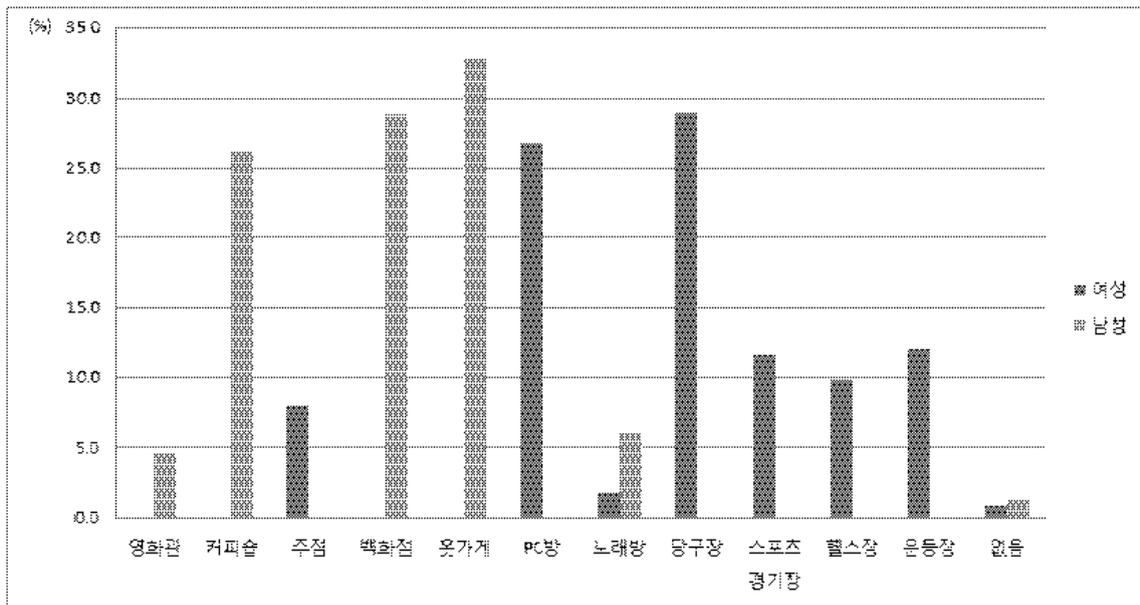


그림 4. 이성의 공간(나와 다른 성(性)을 가진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하였을 때, 떠오르는 장소

그림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성의 공간을 물었을 때 떠오르는 장소는 각 성별로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이 겹치는 항목은 비율이 매우 낮은 노래방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남과 여의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고 있었다. 여성은 남성의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PC방이나 당구장, 운동장 등 활동 지향적 공간을 선택한 반면, 남성은 여성의 공간으로 커피숍, 옷가게, 백화점 등 소비 지향적 성향을 가진 공간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응답이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개인의 경험적 근거에 의해 주위 이성친구들이 자주 가는 곳을 '이성의 공간'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 막연하게 다른 성의 보편적인 특징 즉 남성성, 여성성을 떠올리며 그들이 특정한 공간을 좋아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즉, 각 성별에 따른 인식, 고정관념이 공간의 성향을 정의 내리는 것에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여성은 조용한 곳을 선호하며 동적인 활동을 싫어하리라는 남성들의 인식과, 남성은 게임이나 운동 등 동적인 활동을 하는 곳을 좋아할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판단에 의해 그림 4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세 번째, 남성과 여성의 성질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대체로 여성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하거나

물건을 사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은 게임이나 운동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한다. 또한 여성은 동성친구들과 이야기 즉,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 남성들은 동성친구들과 스포츠나 게임과 같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인식이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 4.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인간의 행위에서 얻는 만족감은 집중하는 에너지와 몰입의 체험으로부터 나온다. 여가활동의 특성은 함께하는 대상 및 여가성향 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성별'이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일의 소요시간과, 여가에 대한 흥미 등 여가유형, 여가에 참여하는 패턴에 영향을 준다. 여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배경 및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하다.(신화경, 2007) 결국 업무 외의 시간인 여가시간을 보낼 때 사람들은 위의 결과와 같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 이용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성별에 따른 사회의 인식과 성향으로 분류하였다.

설문 결과, 남성과 여성이 비호감을 느낀 공간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자신의 성적 성향과 맞지 않아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이고, 그 외의 요인들도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 남성은 타인의 시선(인식)을 매우 의식하며, 또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불필요한 장소라고 여기고 있다. 여성이 많은 장소, 즉 자신이 여성적으로 보일 장소들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남성들은 '남자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하느냐는 인식과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 공간을 피하고 있었다. 여성의 남성화는 문제가 없지만, 남성의 여성화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은 환경적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기피하는 장소는 대개 남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이 소음이나 냄새,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아 각각의 성향이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인식

'여성성'과 '남성성'은 젠더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개념으로 생물학적 특징의 영향이 아닌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여성성' 및 '남성성'이란 단어는 생물학적 성(性)의 개념만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행위 주체의 성별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특정 행위나 관행은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남자라고 하더라도 가사일, 육아, 쇼핑 등의 행동을 한다면 전형적으로 '여성스러운' 행동이라고 간주된다.)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주어진 상황이나 타인의 기대치 등에 따라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스럽게 또는 남성스럽게 행동한다.

'여성스러운' 행동이나 '남성스러운' 행동에 대한 메시지는 광고, 언론, 교육 자료 등의 매체나 집, 회사, 공공장소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등 사회 곳곳에 내포되어 있다. 결국 특정 행위에 대해 여성스럽거나 남성스럽다'라고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시각은 여자와 남자의 행동에 의해, 사회에 의해 자연적이거나 타의적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사회에 내재된 이러한 '성(性)에 따른 행동 규정'으로 인해 사람들은 젠더 규범에 맞게 암묵적으로 결정된 커리어 외의 다른 커리어를 갖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Faulkner, 2009. EU집행위원회, 2014. 재인용). 다시 말하면 암묵적인 사회

의 결정(인식, 고정관념의 형성)에 따라 사람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별에 맞는 성향'의 행동을 하도록 강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은 남성스럽게, 여성은 여성스럽게 각자 '남자다운', '여자다운' 장소를 찾아 이용하게 되며, 이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2014.)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남성은 타인의 시선(인식)을 의식하면서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많은 장소, 즉 여성성이 돋보이는 장소이며 자신이 여성적으로 보일 장소들을 기피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은 "남자가 어떻게 그런 곳을 가냐"는 인식과 고정관념 때문에 특정 공간을 피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남성화에는 문제가 없지만 남성의 여성화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의 고정관념이 공간의 이용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들 또한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암묵적인 시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 공간을 이용하는 패턴을 파악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동적인 공간에서 게임이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 능력을 과시한다. 이는 '남성은 자신의 신체가 주변의 공간적 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면서 세계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구성된다고 생각(질 발렌타인, 2009. 63)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자신의 육체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질 발렌타인, 2009. 63)'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정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여성의 성역할과 입지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 1990)은 「여자아이처럼 던지기(Throwing like a girl)」라는 글을 통해 여성의 신체활동 수행 방법이 공간을 점유하는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그 내용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공 던지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남자아이는 몸을 뒤로 젖혀 온 힘을 다해 공을 던지는 반면, 여자아이는 뻗뻗하게 팔만 이용하여 공을 던진다. 이것은 '여성이 자기 신체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억제된 방식으로 공간을 점유,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영은 말한다. 이를 "억제적 지향성(inhibited intentionality)"이라 한다. 억제적 지향성이란 여성이 신체활동을 하는 데 본인 스스로에 대해 소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신체를 억제시킨 채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여성이 자기 신체의 공간적 잠재력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으며 활동적인 공간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습된 신체적 태도 때문이다. '여성이 태생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질 발렌타인, 2009.)

### 3) 성향

위와 같은 사회에 만연한 인식만으로 공간 이용 행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공간 이용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을 '성향'으로 보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이용하려 한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르게 나타난 공간이용은 그것을 이용한 대상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용한 결과인 것이다. '남성의 공간'은 남성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공간이며 '여성의 공간' 또한 그러한 욕구에 의해 나타난 공간인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인지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적극적, 지배적인 성향과 상황분석력이 뛰어난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감능력과 언어적 소통능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능력 차이는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설문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이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낀 공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요인은 자신의 성적 성향과 맞아서, 혹은 맞지 않아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였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용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은 활동적인 장소, 혹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거나 개인의 편의를 위한 공간을 이용하려 한다. 따라서 경쟁심과 적극성, 쟁취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 장소에서 흥미를 느끼고, 소비의 공간은 여가로서 이용하기에 불필요한 장소라고 여겼다.

한편 여성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가장 즐겁게 여겼으며, 여럿의 모임 속에서 나누는 상호교감을 통해 안락함을 느낀다. 또한 남성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환경적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기피하는 장소는 대개 남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피의 원인은 대부분이 소음이나 냄새,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아 각각의 성향이 상반되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결론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어떤 공간에서는 남성화의 풍경이, 다른 공간에서는 여성화의 풍경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 서로 다른 공간들은 얼핏 상이해 보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간은 그 자체로서는 비어있는 그릇(용기)일 뿐이며, 공간 안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는 매개적 대상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된 공간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성(性)이 가진 사회적 의미와 성을 공간에 드러낼 수 있는 힘을 해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성향과 그것이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공간의 관계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설문은 각 성별이 업무외의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공간, 이용하기를 원하는 공간, 피하고 싶은 공간, 그리고 '이성(자신과 다른 성별)의 공간'이라고 여기는 공간이라는 총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연구의 결과, 남녀 모두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실제로도 자주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대체로 여럿이 함께 이용하더라도 개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즉 게임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편안함을 느끼며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거나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좋아했다. 즉, 본론에서 설명하였듯이 남성은 신체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 지향적' 공간을 선호했으며, 여성은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소비 지향적'인 공간을 선호하였다.

예외의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공간에 대하여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비교적 대부분의 공간을 자유롭게 고르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은 특정 몇몇 장소만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고, 남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꼈다.

성별에 따라 각각의 공간에 대한 선호도 달랐고, 특성도 달랐다. 결국 남성, 여성이라는 성(性)이 실제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반된 성적 특성이 공간의 이용에 구분되는 패턴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최병두, 2009.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 파주: 한울
-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서울: 한울
- 폴 녹스(Paul Knox), 2012.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 질 발렌타인(Gill Valentine), 2009. 사회지리학, 서울: 논형.
- 신화경, 2007. “성별에 따른 직장인의 여가생활 특성 및 여가생활 공간에 대한 선호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07-118
- 안숙영, 2011.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여성학연구」, 21(2): 7-37
- EU집행위원회, 2014. 「과학기술 젠더혁신 - 젠더 분석이 연구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부록A 여성성 & 남성성」,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